

[사회]

■ 새터민들 무안서 1박 2일 한가위 한마당

여간첩 사건에 다가온 시선 "똑같은 한국인으로 봐주길"

“명절만 되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마음이 편치 않은데, 간첩 원정화 사건 이후 주변의 시선마저 곱지 않아 괴롭습니다.”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추석명절을 맞아 마련한 '새터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에 참석한 50명의 새터민(탈북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1박2일(14~15일) 일정으로 무안군 해제면 C펜션에 모인 이들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과 최근 불거진 여간첩 사건으로 인한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어느 때보다 힘겨운 추석을 맞고 있었다.

15일 새벽 새터민들도 차례상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차례상에는 전날 손수 빚은 송편과 만두국, 버섯무침, 산적, 전어구이 등 10여 가지가 올랐다. 조촐하지만 정성껏 마련한 차례상에 새터민 모두가 함동으로 절을 올렸다. 침묵 속에서도 북쪽 가족의 건강과 자신의 새로

운 사회 정착을 비는 듯 했다. 합경북도 출신으로 지난해 탈북을 감행, 1년여의 중국 도피생활 끝에 지난 6월 한국에 온 김모(37)씨는 “남한에서 맞는 첫 명절인 추석이 생소하고 쓸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5년 전 탈북한 뒤 광주에 등지를 트 이모(60)씨는 “명절이라고 선물꾸러미 챙겨 고향 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냥 부럽기만 하다. 가족들을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건강히 오래오래 살길 바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끝을 흐렸다.

“차례 지내기”가 끝난 뒤 곧바로 노래자랑 대회가 이어졌다. 고향생각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방안 분위기도 순식간에 바뀌었다. 새터민 사이에서 가수로 소문난 최모(여·42)씨는 북한 노래인 '반갑습니다'를 열창해 동료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새터민과 함께하는 한가위'에 참가한 새터민 50명이 차례를 지낸 뒤 손수 만든 만두국과 전어구이, 산적 등의 음식을 나눠먹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른 한 편에서는 5명씩 두 편으로 갈라 웃관도 벌어졌다. '새터민'이라는 호칭만 빼면 남한의 어느 가정의 명절 분위기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최씨는 “북한에서는 남한처럼 차례상 음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능력이 맞게 성의껏 준비한다. 음식도 만두만 빼면 크게 다를 게 없다”며 “다만 성묘 방식은 남한과 조금 다르다. 북한에서는 밭초를 한 뒤 준비해온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절 대신 목례를 하며 이어 가족

친척이 모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운영소 측은 “새터민들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간첩 원정화 사건 이후 새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은 생존을 위해 남한으로 온 만큼 주변의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September 16th (Monday) and 17th (Tuesday). Includes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and a table of daily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like Seoul, Busan, and Jeonju.

빛 보증 패가망신 줄어든다

'보증인 보호법' 22일 시행 자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법안은 채권자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때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기관 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연체되면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빚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대행업자는 물론 개인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 등에게 폭행, 협박,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 /연필뉴스

광주시 출연 기관 화재 안전관리 미흡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도학숙 등 광주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방기 감시결과가 이같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급 방화관리 대상시설로 방화관련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방화 관리실무자로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화재 발생시 카메라, 영상편집기 등 4억

주요대 수시 2학기 원서 접수 마감 자유전공학부 인기

조선대 경쟁률 3.6대 1 진행되는 학교의 경우 학생부뿐만 전행이 실시되는 수시2-1보다는 수능 이후 전형이 진행되는 수시2-2 전형에 학생들이 몰렸다. 조선대는 수시2-1 모집 원서접수 결과, 총 1천234명 모집에 4천440명이 지원,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3.2대 1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다. 일반학생 전형의 간 호화과가 2명 모집에 80명이 지원해 4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경찰행정학과 24.3대 1(4명 모집에 97명 지원), 선박해양공학과 14.8대 1(6명 모집에 89명 지원)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들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됐다. 한편, 광주대, 광주여대, 호남대, 동인문계열은 65명 모집에 772명이 지원해 11.9대 1을, 자연계열은 45명 모집에 344명이 지원해 7.6대 1을 각각 기록하는 등 평균 경쟁률을 넘었다. 수시2학기 전형을 두 번에 나눠서

수족관에 구리 넣으면 비브리오팀 없어진다

생선과 조개 등을 산 채로 보관하는 식당 수족관 바다에 구리(Cu)를 넣으면 식중독균인 비브리오팀 99.99%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허정원 박사는 지난 8~1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영국 미생물학회(SGM) 가을총회에서 바닷물을 채운 수족관에 구리판을 넣으면 구리 이온이 방출되면서 강력한 살균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바닷물에 채워진 수족관에 구리판과 식중독을 유발하는 비브리오팀에 감염된 활어와 조개를 넣은 뒤 비브리오팀의 변화를 관찰했다. 구리판을 넣고 40시간이 지난 뒤 활어와 조개류를 조사한 결과 기생하던 비브리오팀의 99.99%가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필뉴스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 공개 '시끌' 교과부 '알 권리 충족' ... 전교조 '정치적 의도'

오는 12월부터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교사 수가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확정·발표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교·중·고교는 오는 1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 학교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시하면서 교원단체와 노조에 가입된 교사수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확정된 시행령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요구가 있어왔고 이번 시행령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임병구 대변인은 직무대행은 “학부모와 알권리와 노조 가입 교사 수 공개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전교조를 노린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udeungsan Munbinjasa' (무등산 문빈정사)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a table of offerings. Text includes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and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Haerye Beomseongdae' (해령법률경매) featuring a lawyer's photo and a detailed table of legal auction results for various districts like Seogwipo, Gwangju, and Jeonju.